



# 기독일보



2024년 5월 7일 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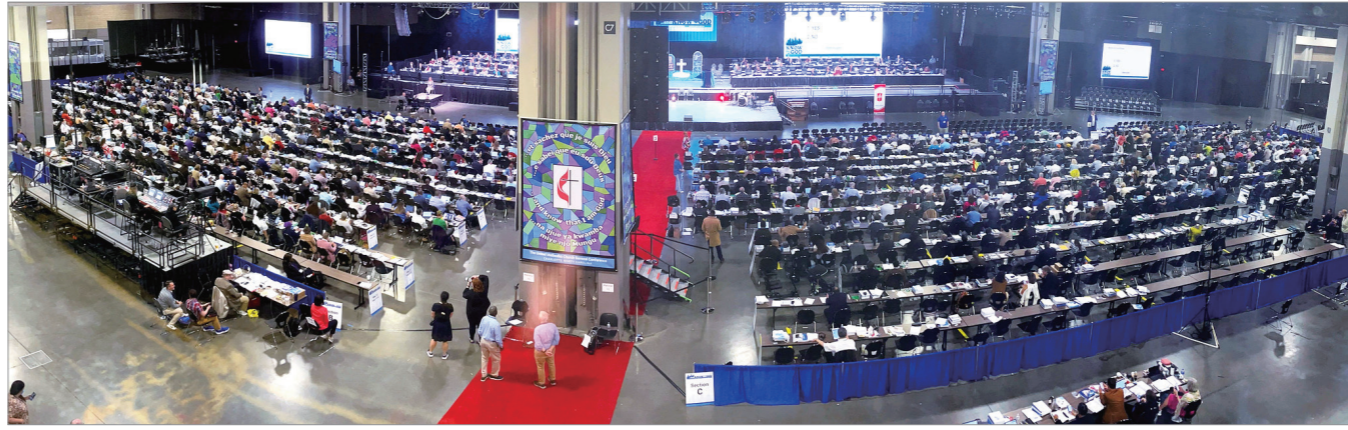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7호

## UMC 한인총회 등 “총회 성소수자 결정, 그들 지지 위한 것 아냐”

공동목회서신 발표... “역차별” 방지 사항도 함께 의결  
차별 없애기 위해 장정 일부 항목 개정  
한인교회 전통 신앙 존중 확실히 보여줘  
소모적 논쟁 넘어 부흥 위해 나아갈 때

미국 연합감리교회(UMC)가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허용하는 등의 결정을 한 가운데, 이 교단 한인총회 등이 3일(현지 시간) 공동목회서신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총회의 성소수자 관련 결정에 대해 제한 규정을 없앴을 뿐, 지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와 한인선교구, 한인목회강화협의회는 이 서신에서 “이번(UMC) 총회에서는 많은 인건이 이뤄졌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결정은 오랫동안 갈등과 논쟁이 되어왔던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앴”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것은 동성애 관련 제한적 언어를 없앤 것과,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목회 후보자의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 그리고 동성 결혼식을 집례한 목회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한 것 등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총회에서

는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앴을 뿐, 이를 지지하는 문구로 대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지금까지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성소수자들이 안수 과정에서 있었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장정의 일부 항목을 개정한 것이지, 그들을 지지하기 위한 결정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총회의 결정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역차별’을 방지하고 전통적 신앙을 지키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함께 의결했다는 것”이라며 그 ‘보호 사항’을 아래 세 가지로 들었다. 첫째, 감독은 개교회들의 신앙 전통에 맞는 목회자를 파송한다. 둘째, 동성결혼 주례 및 장소 제공 여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개교회와 담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다. ©UM News

임 목회자에게 있다. 셋째, 그 결정으로 인해 개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 세 가지 결정은 지난 2월에 한인 연합감리교회 대표들과 만난 토마스 비커 감독총장이 이미 약속했던 내용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번 총회에서는 이 사안을 교단 헌법인 장정에 공식적으로 포함해 교단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믿음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에서 내려진 결정들이 여러 역측과 확인

되지 않은 뉴스로 전해지고 있다”며 “그런 말들 가운데는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동성애자 목회자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가 파송될 것이며, 동성결혼 집례와 장소 제공을 강압 받을 것’이라는 말도 포함한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한인교회는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장정의 보호 아래 동성결혼식 집례와 장소 제공을 거부할 수 있게 되었고, 동성결혼식 집례 혹은 장소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성애 목회자 파송을 강요받지 않는

것을 보장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총회의 결정을 통해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이슈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던 다툼과 분열을 종식하고, 이제는 교회의 본래 존재 목적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금까지의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이제는 모든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가진 선교적 역할을 모으고, 말씀과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앞장서 나아갈 때”라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

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라며 “그러기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과 전통을 견고히 세우게 될 것”이라며 “이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감동을 주는 자랑스러운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한편, UMC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서 현지 시간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선 △성직자임이나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 선언(사회생활원칙 개정) △동성 결혼식이나 결혼식 주례로 위법 판결 받은 성직자에 대한 무급 정직 1년 이상의 의무적 처벌 조항 삭제 △교단 사회생활원칙에서 “동성애의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문구 삭제 등의 결정이 있었다. ▶관련기사3면 김진영 기자

## 예장 개혁, 교단 통합 후 첫 ‘목사·장로 기도회’ 개최

전국에서 약 400명 참석... 정서영 총회장 “더욱 연합해 부흥하자”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최근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전 한화리조트에서 ‘2024년도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예장 합동개혁-개혁 측이 교단을 통합해 예장 개혁으로 새 출발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전국에서 약 400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제1부 세미나, 제2부 예배, 그리고 제3부 기도회 순서로 진행됐다. 제1부 세미나는 안양노회장 이금숙 목사의 기도로 시작했다. 강사인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이지혜 교수(신약신학)가 ‘히브리서가 말하는 아들 됨이라는 주제로, 제1강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3-4장), 제2강 ‘광야를 지나 들어가’

는 안식(1-2장)을 강의했다. 제2부 예배에 앞서 총회장 정서영 목사의 소개로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설립 이사장 나 원 목사가 등단해 인사말을 했다. 나 목사는 “교단 합동 후 첫 목사·장로 기도회 모임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총회와 노회, 지교회 모두 부흥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총회장 이상규 목사가 인도한 예배에선 부총회장 유연섭 장로가 기도했고, 서기 김양수 목사가 창11:29-12:2 말씀을 봉독했다. 이어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 임홍재·하수연 교수의 특송 후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총회장은 “같은 환경에서 두려움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고, 자신감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다”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일생을 하나님께 보충하고 인도하신다”고 했다. 그는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것처럼,



예장 개혁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예장 개혁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 우리가 더욱 연합하는 가운데 총회와 노회가 서로, 교회마다 부흥하고 발전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헌금 순서에서 중앙노회 강사라 목사가 특송을 했고, 회계 최공호 목사가

기도했다. 이후 김순귀 총무가 광고했고 함께 찬송을 부른 후, 직전 총회장 정성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3부 기도회는 총회부흥사회 총재인 채광명 목사(증경총회장)의 인도로 진행됐다. 채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사역 성공의 비결이니,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보자”고 했다. 특별기도 순서에선 △강북서노회장 임명하 목사가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



총회장 정서영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예장 개혁

해” △수도노회장 문양식 목사가 “교단과 노회, 지교회의 부흥을 위해” △천안노회장 김성희 목사가 “수도국제대학원대학교와 개혁신학교를 위해” △목포노회장 박영일 목사가 “지방신학교 활성화를 위해” △광주동노회장 이현옥 목사가 “세계선교와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동서노회장 정성국 목사가 “한국교회 연합과 다음 세대를 위해” △경남노회장 박정훈 목사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전북노회장 우현식 목사가 “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노회장 이복순 목사가 “의료계와 정부의 조속한 협의를 위해” △서서울노회장 정병우 목사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주노회장 장주환 목사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 종결을 위해” 기도했다. 한편, 예장 개혁총회는 오는 6월 ‘전국 목회자 부부 여름 수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팬데믹 이후 직장선교 활성화, 어떻게?” >> 7면

Harrington Tower

###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삶의 시작!

살고 싶은 럭셔리 주거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대법원/대검찰청, 강남역, 서울교육대학교, 남부터미널역, 서울고교, 유면산, 예술의전당

### 계약과 동시에 시세차익 기대

2호선 교대역·서초역 +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거리 트리플역세권

### 지금부터의 강남 부동산! 투자하지 말고 소유하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지금, 강남 3구의 말뚝부동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넓은 공간을 선호하던 투자성향이 수준 높은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리는 생활까지 중심의 새로운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디오페라 서초 해링턴 타워

따져보면 볼수록 합리적인 여유! 2ROOM 3BAY 특화평면

TYPE. 2 (전용면적 58.82㎡)

2.6미터 천정과 +2층 3베이 혁신평면 설계  
소형 그 이상의 가치!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한 쾌적한 아파트형 주거공간

차원이 다른 레지던스형 컨시어지 서비스 (098)  
하우스키핑, 핏케어, 조식배달서비스 등 수준이 다른 고품격 레지던스 라이프

트리플 역세권 프리미엄에 개발비전까지  
정보사 이전 부지 개발, 양재R&CD특구 개발 등 강남·서초 특급혜제 프리미엄

서초 해링턴타워 현장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40  
주최: 아나자산신학 (주) (주)한미에셋 (주)코우드 (주)효성중공업(주)

주택전시관 OPEN 02.525.0905

※상기 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 외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상기 CG에 표현된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세제, 경관조명, 옥상정식, 각종 시설물, 명칭 등은 현행법규 및 인허가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